

# 진도군, 올해말까지 전체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완료

### 총 3억5500만원 예산 투입인터넷 소외지역 11곳 예정

### 공공시설과 관광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도 함께 구축

진도군이 올해말까지 인터넷 소외 농촌지역 11곳의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7개 읍면 전체 마을에 인터넷망 기반시설을 완료한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3억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을 중심부 등에 광케이블, 광 단자함, 통신주 등 설비를 설치해 100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42개 마을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11개 마을에 구축이 완료되면 진도군 전체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군 7개 읍·

면 전체지역에 차별 없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온라인 직거래, 인터넷뱅킹, IPTV 등) 제공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마무리된다. 또한 공공시설과 관광지 등 3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으며, 올해 추가로 송가인 마을, 진도 명품관 등 20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정보 소외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인터넷 등 정보 이용 접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 시작

### 이승욱 강진군수 장미농가 격려...농가 어려움 돕기 위해 화훼소비운동 펼쳐



강진군이 장미 생산농가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군산하 및 관내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해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청자골 장미’는 장미의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현재 강진군

32농가 15.3ha가 장미를 재배해 전남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축소되면서 꽃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관내 장미 재배 농가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파로 난방비 또한 증가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15일 이승욱 강진군수는 관내 장미재배 법인인 평심화훼영농법인(대표 조우철)을 찾아 장미 재배 농가를 격려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을 통해 군기관 및 관내의 유관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매주 1회 화훼를 공급하는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를 추진한다. 또 생일직원 및 자녀 졸업식 꽃 선물, 가정 내 화훼류 장식 등 화훼 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자골 장미꽃 선물하기 운동이 화훼 농가의 어려운 경영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모든 국민이 청정지역 남도의 깨끗한 바람과 온기로 가꾼 예쁜 꽃으로 심신 안정과 정신건강 도모로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바란다”면서 꽃 소비 촉진 운동 및 생활화에 동참을 호소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 “청정 해풍 맞고 자랐다” 완도산 한라봉·레드향·천혜향

### 올해 만감류 25t 생산

청정지역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산 한라봉과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 지역 3.8ha에 만감류를 재배해 올해 25t가량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 최남단 완도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 아열대 과수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다. 완도에서 생산된 만감류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만감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당도와 산도를 관리한 결과 당도는 13브릭스 이상, 산도는 1.1% 이하의 고품



질이 됐다. 겨울철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만감류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유휴 시설하우스에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배 기술 교육과 현장 지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해남군, 고구마연구센터 조성...명품 브랜드화 박차

### 297억원 투자 고구마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추진

해남군 대표 특산물 해남고구마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 해남군은 최고 품질 고구마를 생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남고구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97억여원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는 총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해남고구마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 연구·보급을 해남고구마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해남 고구마의 명품화를 이끌 전진기지로 조성하게 된다. 2023년까지 설립될 해남고구마연구센터는 외래종 고구마를 대체할 해남 특화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기상

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처하는 안정적인 생산기술 연구, 가공 상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시설과 노지 시험포를 갖추고, 해남고구마의 생산 및 가공, 식품소재 개발 등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군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선별·세척·큐어링 등 시설·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를 세분화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상품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직화·규모화된 고구마 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해 소규모 재배농가의 유통관리를 체계화하고, 유통장구를 일원화하는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현재 10% 수준인 고구마 가공·반가공 비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고구마 수출도 현행 70톤에서 300톤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한 상품개발 및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과 함께 수출 전문 생산단지까지 2025년 200ha까지 확대된다. 해남은 600여 농가, 1,964ha 재배면적에서 연간 3만 4,000여톤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남 최대 고구마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으며,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되어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겨울 바다 헤쳐 나온 매끄러운 별미(別味) ‘장흥 찰매생이’

치녀의 고운 머리칼을 닮았다는 장흥 매생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매생이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숙취 및 스트레스 해소, 성인병 및 골다공증 예방, 아이들의 성장 촉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생굴·소고기와와의 궁합도 뛰어나 함

께 요리해 먹으면 제철에 먹을 수 있는 탁월한 보양식이 된다. 매생이로는 국·탕·전 등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올해 수확된 매생이는 윤기와 식감이 남달라 ‘찰매생이’라 불리며 호평을 자아내고 있다”며 “겨울 별미로 으뜸가는 장흥 매생이를 많은 분들이 드셔 보시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